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60년(서기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제126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헤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06329)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된 봉축법회 중에서 육법공양 모습 ▶ 관련기사 4,5면

제11기 금강선원 청소년 기초명상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오는 7월 30일(토)부터 제11기 청소년 기초명상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2~고3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명상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인격과 도덕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고자 집중력, 지구력 및 자기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금강선원의 집중명상프로그램입니다.

금강선원에서 개발한 금강전두엽 훈련을 비롯하여 집중명상, 주제명상, 스트레스관리 및 이완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헤거 큰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되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청소년 명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연 1회로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정 : 7월 30일(토)~9월 25일(일)
- ▶ 시 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5시 30분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 ▶ 참여대상 :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 ▶ 참가비 : 1인당 3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icc445@hanmail.net)
- ▶ 문 의 : 금강선원 02-445-8484 탄허기념박물관 02-445-8486

한문전문반 『근사록』 개강

주자학의 입문서로 일컬어지는 『근사록近思錄』 특강이 오는 6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대법당에서 박완식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됩니다.

『근사록』은 송나라 유학자인 주희와 여조겸이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글 중에서 학문의 중심문제 등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입니다. 매주 일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박

완식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6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대법당
▶ 수강료 : 10만원

미래를 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탄허스님

탄허스님은 1913년 독립운동가 율재 김홍규선생의 차남으로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여 1934년(22세)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 한암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1983년 세수 71세(법랍 49세)로 열반하시실 때까지 평생을 불교 경전 연구와 번역에 전념하고 인재양성에 매진하신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선사이자 대석학이십니다.

1939년(27세), '화엄산람'을 개설하여 한암스님의 증명 하에 중강을 맡으면서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을 현토(懸吐)한 후, 이를 계기로 시작된 역경(譯經)사업은 입적하시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67년 원고를 탈고하고 1975년에 간행된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은 한국불교사상 최대불사를 이룩한 화엄학의 집대성으로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으로 길이 빛나는 대작불사였습니다.

탄허스님의 역경(易經)사업은 조선시대이후 최대 역경사업으로서 한국불교사에 그 위업을 빛냈고, 역경 불전(佛典)은 전국 불교 강원의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도 불교경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맹목적 기복신앙에서 진리 탐구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두루 회통하신 한국 불교의 거목, 탄허스님. 헤거스님(금강선원장)을 비롯하여 현대 불교를 이끌어 가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고,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인재양성에 평생을 바치신 탄허스님. 열반하신 지 올해로 33년, 5월 30일(월) 오후 7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고 업적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탄허스님의 뜻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거스님의 노자 도덕경 강의 - BBS방송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04:00, 15:30, 21:00에 방송됩니다.
▶ 재방송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5:30에 방송됩니다.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 과정 개강
▶ 일 시 : 6월 4일(토) 오후 1시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다례재

금강선원에서는 탄허대종사 열반 33주기를 맞이하여 대종사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신록속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행사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많은 동참바랍니다.

- ▶ 일 시 : 2016년 5월 30일(월) 오후 7시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



제4회 금강선원 서회전 개최



제4회 금강선원 서회전에 출품된 작품들



헤거르스님, 인전선생님과 함께 한 서예반 회원들

지난 5월 9일(월) 오후 4시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제4회 금강선원 서회전이 열렸습니다. 금강선원 서예반은 인전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지금까지 각종 서화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매년 1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서

회전을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 점검과 수행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서체를 정하여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오는 5월 31일 까지 전시되는 금강선원 서예반 서회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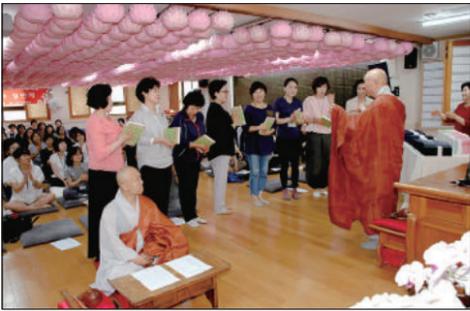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하여



하안거 결제일을 맞이하여 법문을 하시는 헤거르스님
하안거 결제일(음력 4월 15일)을 맞아 금강선

원에서는 3개월간의 하안거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열린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헤거 큰스님께서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모든 기관으로 함께 보고 집중하여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번 결제 기간에는 화를 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안거 수행은 해제일까지 5층 불이실과 심검당에서 진행됩니다.

제41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



헤거 큰스님으로 부터 상을 받는 수상자들
지난 5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제41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에 이어서 41기 선하불교대학 회장(김유미)의 답사와 각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졸업을 축하하는 가가합창단의 축하에 이어 헤거 큰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헤거 큰스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졸업생 모두 새롭게 발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Ndoye Douts의 작품 기증으로 열린 특별기획전 홍보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4일(토)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봉행되었던 점등법회에서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기금 마련 특별기획전'을 홍보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행운권 추첨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오는 6월말에 전시 예정인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기금 마련 특별기획전'의 화가 은도에 두츠(Ndoye Douts)가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한정판 아트 작품 1점을 기증하여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행운의 당첨자뿐 아니라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특별기획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기금 마련 특별기획전

두츠 특별전

여름날의 동화



일시 : 2016년 6월말 예정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은 오는 11월 12일(토)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맞이하여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리고 금강경 강송대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네갈의 대표 화가 은도에 두츠(Ndoye Douts)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은도에 두츠는 '100=1, 1=100'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즉,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며 전부가 그대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며 없어서는 안될 우주의 일부인 것이라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과 닮아 있는 그의 작품 세계를 알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널리 홍보하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월말에 전시 예정인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 기금 마련 특별기획전'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특별기획전 포스터의 그림 설명: 제6회 금강경 강송대회의 슬로건인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금강경 페스티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Ndoye Douts의 'Untitled'입니다.

呑虛大宗師遺墨選



1270mm×3100mm

攝心歸空 섭심귀공

마음을 가다듬어 공(空)의 세계로

박물관 소식

수서경찰서 서장님 내방

4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실시되었던 탄허기념박물관과 수서경찰서가 함께 한 '행복 에너지 만들기' 교육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금) 수서경찰서 서장님께서 본관에 내방하셨습니다.

부관장님(성안스님)과 환담을 나누시고, 박물관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와 놀이 만들기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활동을 하였고 만족도 또한 높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총 7개 학교(수서중, 숙명여고, 평촌초, 세명초, 면목초, 면목초, 포이초)의 학생들이 본 박물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미술 심리 체험활동에 중점을 두고 라포 형성 활동과 희망 메시지 부채 만들기, 희망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학생들



2016 길위의 인문학 '오감만족 인성 속삭'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집단미술심리체험활동을 통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교육 내용 : 탄허대종사의 유품 관람과 교육을 통해 탄허스님의 일대기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미디어 기기활용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을 이해, 배려, 공감하는 자세를 배우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기간 : 2016년 3월 2일 ~ 10월 31일

▶ 시간 :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3시 (2시간 과정)

▶ 대상 : 초등학교생, 중학생

박물관 소식

◆2016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오감만족 인성 속삭'
교육기간 : 4월~10월
교육시간 : 화요일 ~ 금요일 오전10:00~ 오후 12:20 / 오후2:00~오후4: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교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 5월 9일 금강선원 서화전 오프닝 오후4시
- 5월 14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법회(10시30분, 오후7시)
- 5월 3일 수서중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4일 숙명여중, 본오중 길위의 인문학
- 5월 19일 포이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24일 세명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31일 포이초등학교 길위의 인문학
- 5월 20일 국제학술대회 참가국립중앙박물관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관람료 무료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혜거 큰스님 봉축 법어



부처님 오신지 2560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밝혀주신 법 가운데 하나는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라는 진리입니다. 희노애락 탐진치로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인간세의 중생들은 이 진리로 고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전까지 신에 의지하고 얽매어 살던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계급이 타파되어 '일체중생시유평등一切衆生是有平等'의 인류평등사상도 더불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서 생겨나고 신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존귀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셨다는 사실은 인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즉 마음 쓰는 법은 팔만대장경에 소상히 모두 적혀있는데, 그 가운데 화엄경에는 세상을 장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장엄과 법당장엄, 법좌장엄 등 세간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미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보석이나 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십바라밀법을 통해서 장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워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올바른 건국이념을 확립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부처님의 십바라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부족한 이웃에게 재물과 법보시를 베풀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고, 지계 바라밀로 나라의 법과 도덕을 지켜서 누구나 평등하고 바른생활로 즐거운 일상을 하면 향기로운 꽃이 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욕바라밀로 분쟁과 갈등이 일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남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생각을 돌려 참고 인내하면서 조용하게 기다려주고, 정진바라밀로 자신이 지키고자 한 조목이나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한시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참고 정진해서 업을 바꾸고 남과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바라밀로 끊임없이 내 안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면 인격이 향상되면서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반야바라밀로 지혜를 발휘해서 매사가 원만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면서 경계마다 지혜가 터져서 주변사람들에게 환희심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방편바라밀로 적재적소 상대에 알맞게 대해주고 도와주면서 모든 것이 잘 성취되도록 하고, 원바라밀로 끝없는 노력을 내서 굳건히 정진하고 자비를 베풀어 복지를 이루고, 역바라밀로 매사를 가행전진하면서 원만히 꿈을 성취하게 하고, 지바라밀로 반야지가 더욱 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십바라밀은 우리 불교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법당이나 이 불좌도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표현하면서 십바라밀에 맞게 장엄되었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승한 인연으로 이런 불법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선 겸손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젊었을 적에 끝없는 자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혔구나 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동양역사에서 유교의 바탕은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강경 강성하고, 도교는 정적이고 유순하고 겸양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실에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도교적인 부드러운 사람이 대부분 지도자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한 사람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자꾸 낮은 데로 처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외롭지 않고 남에게도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임금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고야'라는 뜻인 朕으로 불렀습니다. 또 '불쌍한 과수대'를 이르는 과인寡人이라고도 했고, '먹을 게 없고 녹이 없는 사람'인 불곡弗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듯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임금들도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는 가장 힘 없고 외롭고 낮은 사람으로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화대원필유여원과大怨必有餘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원한을 풀더라도 앙금은 반드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원결元結을 맺지 말라는 말인데, 큰 다툼이 있고 나서 뒤에 화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가슴 속에 쌓였던 앙금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서 원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소 검약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검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밥은 굶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에 이미 여러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고, 실제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많이 쓰지 마라. 내 업으로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깊이 참회하고 마음을 진실하게 하면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

면 머지않아 반드시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억지로 남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나서기 보다는 남을 잘 보필해야 도리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사실은 제가 젊었을 적에는 몰랐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남에게서 구하지 말고, 내 공부가 쌓여서 만족할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제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달라고 주변에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깊어져라 즉 깨달아라. 희로애락에 내가 흔들리고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는 것은 과거 탐진치가 쌓인 업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도록 끝없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은 공부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원효대사가 쓰신 '발심發心'이라는 권학문이 있습니다. 미물도 필요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심을 버리십시오. 돈 건강 명예 미모 등 인간은 보는대로 듣는대로 차별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법을 공부하면서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신본부유증애하유생我身本不有憎愛何有生' 내 몸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애증이 있단 말인가! 내 몸과 주변 것들이 내 것이라는 탐착을 버리십시오. 오로지 내 마음만이 내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각자 가슴에 연등처럼 밝은 부처님 법을 새기고 큰 발심하셔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행정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금강선원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봉축법요식과 오후 7시 점등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봉축법요식은 육법 공양(향, 등, 차, 꽃, 과일, 쌀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 헌공, 축사(탄허기념관 전보삼 관장, 이상진 교수)와 금강선원 가가합창

단의 축가에 이어 해거 큰스님의 봉축법어, 관불의식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거 큰스님께서는 보시바라밀을 비롯한 십바라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지표를 세워 투철하게 정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발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법문이 끝난 후 해거 큰스님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은 석가모니불을

염하며 관불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점등법회는 오후 7시, 음악회를 시작으로 예불, 사성례와 연등공양 발원문, 점등의식, 축사에 이어 해거 큰스님의 봉축법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점등법회 음악회는 남은경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하여 가가합창단의 축가, 승무(김지람) 순으로 진행되었고 점등의식, 축사(김종훈 국회의원, 신연희 강남구청

장, 김현기 서울시의원)와 법해 신도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거 큰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금강선원 봉축행사는 오전 봉축법요식에서부터 오후 점등법회에 이르기까지 금강선원 신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금강선원의 장엄등 ▲



연등행렬에 참가한 금강선원 ▲



금강선원의 장엄등 ▲



육법공양 ▲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시작하며 ▲



관불의식 ▲



관불의식을 하시는 해거 큰스님 ▲



점등법회 중에서 바이올린연주 ▲



점등법회 중에서 승무공연 ▲



동국대 어울림마당에서 ▲



연등행렬 중에서 ▲



가가합창단의 축가 ▲



금강선원의 연등행렬 ▲



연등행렬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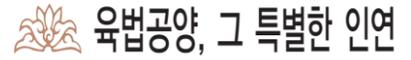
자비그림 ▲



봉사자 ▲



왜 나를 꺾으려만 하세요 - 소유냐 존재냐



꽃 한 송이가 피어있습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작은 꽃이 암벽 틈으로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은 노래합니다.

“갈라진 암벽에 피는 꽃이여
나는 그대를 갈라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그대를 이처럼 뿌리 채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가 무엇인지 뿌리만이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그때 나는 신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

테니슨은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 꽃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는 꽃을 뿌리 채 뽑아냅니다. 꽃을 꺾어 들고 생명의 신비를 깨우치고 싶어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냉이꽃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이렇게 노래한 사람은 일본의 시인 마쓰오 바쇼입니다. 바쇼 역시 깜짝 놀랍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얼굴을 내민 냉이꽃을 본 것이지요. 짧은 시이지만 자연의 경이에 고개를 숙이며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꽃을 발견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시들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의 서문에 실려 있습니다.

프롬은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

어 설명합니다. 먼저 어떤 대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소유하고 정복하여 자신에게 이롭도록 이용하는 ‘소유적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대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공존하려는 ‘존재적 삶의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테니슨은 꽃을 소유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했고, 어쩌면 그러다가 생명의 신비를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꽃을 소유해버린 순간, 꽃의 생명은 사그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이상 그 꽃을 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욕망하고 갈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물질적 풍요도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만으로는 세상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꽃을 꺾어 가면 결국 세상의 모든 꽃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적 삶의 방식은 이와 다릅니다. 바쇼의 경우, 아름다움에 경탄하지만, 꽃에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바쇼의 손은 비어있지만, 꽃은 마음 안에서 피어나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 썼을 것이고, 바쇼의 시 덕분에 사람들은 냉이꽃을 더욱 유심히 바라보았겠지요. 아, 그리고 작은 냉이꽃은 여전히 울타리 밑에서 흔들리다가 너른 들판으로 점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존재적 삶의 방식이란 대상을 사랑하되 그 존재 방식을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대상이 더욱 빛나고 함께 아름다워지는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인류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 또한 심해졌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자연을 위협하는 상황들도 속출합니다. 진보와 풍요의 한 편에서 빈곤과 파괴가 난무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가?’ 라고 프롬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지속적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상의 면면에서 이것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학습, 지식, 대화, 사랑, 독서 등을 떠올려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소유적으로도 또는 존재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자녀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고 프롬은 일갈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나를 통해서 자기 본연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목표를 마음대로 정해놓고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행복하다고 힘겨워하는 아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랑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갖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꽃을 꺾기 전에, 잠깐 멈추어 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나를 꺾으려만 하세요...”

존재론적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프롬의 이야기는 책이 처음 출간된 1970년대가 아닌, 오늘 이곳에서 더욱 절실하게 들립니다.

글 / 한수영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몇 년 전 선하불교대학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금강선원과 헤거 큰스님과의 귀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선하불교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매주 2번 진행되는 헤거 큰스님의 경전강의를 들으며 불교 공부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우연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의 육법공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두 14명. 걸음걸이에 서부터 손동작, 몸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한복을 갖춰 입고 매주 주말마다 모여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연습은 계속되었고, 마지막 연습일에는 헤거 큰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점검해주셨습니다. 큰스님의 격려에 모두가 발심하여 부족한 부분을 연습, 또 연습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연습을 시작했을 때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의 간단한 의식이라고만 여겼던 제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의 첫 순서로 시작 된 육법공양. 드디어 보광명전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공양 올리는 순서에 맞추어 마침내 차를 들고 나가는데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걸을 때 다리도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해서 대중들 사이로 나아가 차를 올렸습니다. 20분 남짓한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긴장되었던지요.

아쉬움은 있었지만 여법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에게는 정말 영광스럽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 헤거 큰스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들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함께 한 법우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글 / 오현정(선혜지, 제34기 선하불교대학)

내 몸이 반한 병원
한성한방병원
02-543-7533 | www.hansungmk.com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육조단경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한비자 특강 매주(일)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 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 14시 30분
청소년참선(심화) 매주(토) 오전 10시
어린이명상교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제4기 금강명상지도자과정 6월4일(토)~12월10일(토) 오후 1시

문화특강 안내

한문반(도덕경 특강) 매주(수, 금) 오후 1시 30분
한문전문반(근사록)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큰스님 동정

6/15(수) 불교상담개발원 강의 14:00~17:00
18(토) 불교상담개발원 강의 14:00~17:00

선원 일정 (6. 1 ~ 6. 30)

6/ 1(수) 21일기도 입재 09:20
육조단경 10:30
2(목) 해외순례법회(중국) 6/2~6/8
3(금) 대승기신론 10:30
4(토) 금강명상지도자과정2급 개강(8주과정) 13시
5(일) 초하루기도 09:20
한비자특강 10:30

6(월) 현종일
8(수) 육조단경 10:30
9(목) 기초참선집중수행(3일간) 14시~17시
10(금) 대승기신론 10:30
11(토) 금강명상지도자과정2급 13시
12(일) 한비자특강 10:30
근사록강의 13:30~16:30
13(월) 기초참선 14:30
15(수) 육조단경 10:30
17(금) 대승기신론 10:30
18(토) 금강명상지도자과정2급 13:00
19(일) 보름기도 09:20
한비자특강 10:30
근사록강의 13:30~16:30
20(월) 28기초참선 수료식 14:30
21(화) 21일기도 회향
22(수) 지장재일 09:20
육조단경 10:30
23(목) 전통불교연구원 개원 16주년
24(금) 대승기신론 10:30
25(토) 금강명상지도자과정2급 13:00
금강경독송집중정진 19:00~22:00
26(일) 한비자특강 10:30
근사록강의 13:30~16:30
29(수) 육조단경 10:30

헤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야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 30송.....32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 55위.....12개
반야심경.....4개
아마천공계찬품.....7개
신심명.....8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헤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야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 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서문.....26장
맹자 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 특강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15장
New 맹자 진심장(헤거스님).....26장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금강회보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선원의 소식지인 금강회보는 금강선원의 대내외 소식 및 헤거 큰스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장르의 글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신문입니다.
신행생활속에서 느낀 소중한 경험이나 순수 창작물인 다양한 소재의 글, 시, 그림, 사진 등을 금강선원 신문부로 보내주세요.
금강회보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신문입니다.

신문부 e-mail
sinmoon445@hanmail.net

금강회보에 광고하세요

금강회보는 월 1회 발행되는 금강선원의 신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 및 해외로 발송되는 금강회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됩니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광고 협찬에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금강회보 법보시 받습니다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시금 | 천화당한의원 김옥임 문대섭
보시물 | 장기팔 동명한의원 청심 서준오
대중공양 | 소은희 최승철 전호균 김석순 김동윤 김달래 김나리 무애지 무주상
초파일대중공양 | 법장일동 김진원 장윤정 손경화 손규성 최성원 최재현 정명심
정경심 일원선등일동 임태순 능지행 신동훈 이정숙 진도화 오춘근 의전팀일동 정인행 곽선아 무주상 성도조일동 도피안심 최재갑 장기신 길홍은
박강자 최옥부 이언 이미선 최병철 강북선등일동 동연심 무주상 법안심 편종욱 안예지 자재회일동 정인원 우정수 정각심 무주상 오민규
반야회일동 김정은 개포2선등일동 송파선등일동 권청정심 문혜신 문혜진 송소이 백길수 김영호 최만덕행 최수한 김종영 법상행 헤강월 선자행
김경표 박영자 조화순 최옥환 박정숙 각윤월사무실일동 용인수지선등일동 정안심 박영환 서예반일동 백수빈 김일환 김유화 최유정 김상근
김동일 김민재 이수현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화엄경설판동참

1-1422-1431 이명옥
1-1434-1442 조민자
1-1499-1456 김일환
1-1457-1466 신호연
1-1468-1477 김유미

구좌 동참
1 - 1 4 0 2 심상일
1 - 1 4 0 3 정다윤
1 - 1 4 0 5 이선민
1 - 1 4 0 4 이형주
1 - 1 4 0 9 임안빈
1 - 1 4 0 8 임정빈
1 - 1 4 0 7 정경숙
1 - 1 4 0 6 임태순
1 - 1 4 1 2 임진수
1 - 1 4 1 1 류순정

1 - 1 4 1 0
1 - 1 4 1 3
1 - 1 4 1 4
1 - 1 4 1 5
1 - 1 4 1 6
1 - 1 4 1 9
1 - 1 4 1 8
1 - 1 4 2 0
1 - 1 4 2 1
1 - 1 4 3 3
1 - 1 4 4 3

임상순
최용진
이기우
오정순
황신우
경두현
박시완
박혜령
박강자
성철환
박미희

1 - 1 4 4 4 조흥렬
1 - 1 4 4 5 조해정
1 - 1 4 4 6 조범근
1 - 1 4 3 2 이송자
1 - 1 4 4 7 경인자
1 - 1 4 4 8 김용범
1 - 1 4 7 8 유경진
1 - 1 4 1 7 길상참선팀

화엄경영가구좌동참
1 - 1 4 6 7 박란병영가

금강경 강송대회

여.섯.번.째

마음을 비우는 보고

일시 : 2016.11.12(토)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1. 응시부문 : 개인전, 단체전
2. 원서접수 : 2016년 8월 1일 ~ 10월 30일 (선착순 접수)
3. 접수방법 :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keumgang-sw@hanmail.net)
4. 시 상 : 2016년 11월 19일 (토) / 탄허기념 박물관
5. 시상내역 :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 우수상 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단체상 / 100만원(총 3팀)
각 부분 및 수행수기, 금강경사경 특별상 수여
6. 문 의 : 금강선원 Tel. (02) 445-8484 www.geumgang.org

*제세공과금(22%)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동일 수상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寶物倉庫



주최 : 오대산월정사, BTN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 : 탄허기념박물관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BBS불교방송